

전남광주 통합 이끈 공무원들, '3000만원 파격 성과금'

행안부 특별성과포상 첫 적용...5개 팀 29명에 총 8000만원
입법·이건 조율주도 통합팀 최고액...시비서·산불대응 포함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실무에서 이끈 공무원들에게 정부 차원의 대규모 성과금이 지급됐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견인한 정책 추진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공직사회 성과보상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등 주요 정책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5개 팀 29명을 '2026년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상자로 선정하고 총 8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특별성과포상제도에 따른 첫 사례다.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존 관행을 넘어선 '파격 보상'을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행안부는 성과의 구체성, 대외 파급력, 국민 체감

도 등을 종합 평가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수상자를 결정했다. 가장 높은 포상금인 3000만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팀 11명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관계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고 국회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민선 9기 광역지방정부 최초 통합 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통합 논의를 실제 제도화 단계까지 끌어올린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2000만원을 받은 '정부조직개편'팀은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과 검찰청 폐지 등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며 국가 운영체계 재설계에 기여했다. 또 '산불 대응체계 구축'팀은 범정부 협업체를 처음으로 구성하고 헬기와 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한 뒤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력 투입을 확대해 주별 진화 시간을 98분에서 30분으로 단축했다.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인명 피해를 막아낸 점이 반영돼 1000만원이 지급됐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팀 역시 민간 플랫폼 연계와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2025년 기부액 151.5억원을 달성, 제도

시행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1000만 원을 받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직접 포상금과 공로패를 증정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특별한 성과를 만들어낸 직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

는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보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포상을 시작으로 연중 수시 포상 체계를 운영해 정책 성과를 증진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특별한 성과를 만들어낸 직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

는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보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포상을 시작으로 연중 수시 포상 체계를 운영해 정책 성과를 증진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특별한 성과를 만들어낸 직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한국 축구 경쟁력 강화에 온 힘 기울일 것”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 감사패 수상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전남도체육회는 19일 전남도체육회관 5층 회관에서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전남 및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대한축구협회장의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대신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인 신정식 전남축구협회 회장으로 전달됐다. 송진호 도체육회장은 취임 이후 전남 축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전국 규모 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전남도에서 15년 만에 개최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축구 종목 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대회기간 경기장 현장 안전을 점검하고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쳤다. 이어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경기장 배정 단계부터 부상 방지와 경기력 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현안 다구장을 특별 배정, 어린 선수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5년 개최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도 경기장 시설 정비와 안전 점검, 경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19일 도체육회관 회관에서 대한축구협회장의 감사패를 수상했다.

기용기구 구입·배정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이끌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전국 규모 축구대회 유치와 경기장 개·보수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노후화된 축구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데 힘썼다. 이를 통해 전문선수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동호인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축구 환경을 조성하며 전남 축구 저변 확대와 한국 축구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신정식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겸 전남축구협회 회장은 “송진호 회장의 전남 축구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남도체육회와 함께 전남 축구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대한축구협회장의 감사패는 전남 축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축구인과 체육 관계자 모두의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남 축구는 물론 대한민국 축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농업기술원은 19일 전남도사회서비스원과 도민 건강 증진과 치유농업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치유농업, 전남 복지 현장으로 확대된다

전남농기원·사회서비스원 협약...돌봄·치유 모델 본격화

전남농업기술원이 치유농업을 복지 서비스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며 '농업 기반 사회서비스' 확산에 나섰다.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19일 전남도사회서비스원(원장 신미경)과 도민 건강 증진과 치유농업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순 체험형 농업을 넘어 돌봄과 회복 기능을 결합한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약은 치유농업이 심신 회복과 정신건강 개선 효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복지 영역으로 주목받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특히 지역사회 돌봄 체계와의 연계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과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치유농업 자원 발굴과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전문성 확보와 품질 관리, 사회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현장 연계, 운영 모델의 지역 확산 등 전반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업 현장을 치유 공간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복지 전달체계의 결합해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이미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농촌체험·심신안정'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운영 중이다. 감성노동자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국가재난 대응 인력, 은둔청년 등을 대상으로 순천·구례·해남 등 6개 농장에서 치유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치유 서비스가 일정 성과를 보이면서 정책 확대의 기반도 마련된 상황이다. 김행란 원장은 “치유농업 자원과 복지 네트워크를 결합해 도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겠다”며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치유농업을 전남의 핵심 복지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신미경 원장도 “치유농업은 스트레스 완화와 심신 회복에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농업과 복지가 결합된 이번 협력이 지역 사회서비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9일 광주 북구 임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관 점심사 무료급식소에서 부경하이텍과 ㈜하이퍼루텍 임직원들이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대접 하고 있다.

부경하이텍·㈜하이퍼루텍 광주적십자사서 국·반찬 배식 등 배식 나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재홍)는 19일 부경하이텍(대표 정종균)과 ㈜하이퍼루텍(대표 허선아) 임직원이 광주봉사관을 찾아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 지역 어르신들에게 국과 반찬을 정성껏 배식하며 안부를 전하는 등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부경하이텍과 ㈜하이퍼루텍은 지난 설 명절 무료급식소에 성금을 전달한 데 이어 이번 배식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이어갔다. 정종균·허선아 대표는 “이번 나눔

과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들에게 따뜻한 기운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재홍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배식봉사에 참여해 주신 부경하이텍, 하이퍼루텍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대한적십자사도 앞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최기남 기자 bluesky@



이민순 ㈜창비기술개발 대표(오른쪽)가 전남 장흥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민순 창비기술개발 대표, 장흥군에 500만원 기부 “지역 발전을 위해 꾸준히 나눔 실천하겠다”

이민순 ㈜창비기술개발 대표가 전남 장흥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장흥군청을 찾아 노영환 부군수에게 기부금을 건넸다. 전남 장흥군에 기반을 둔 창비기술개발은 토목 설계와 안전진단, 지반조사 등을 주력으로 하는 전문 기업이다. 이 대표는 현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장을 맡고 있으며, 여성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여성기업 판로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경제인의 성장을 돕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공공구매 확대와 창업 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이 대표는 “장흥에 터전을 둔 기업으로서 지역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껴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장흥군의 지역 개발 사업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부터 연간 기부 한도가 2000만 원까지 확대됐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담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은 기존보다 크게 높아졌다. 정흥=정명수 기자 jms05031@

광주도시공사 ‘사랑의 음식 만들기’ 행사 이웃과 함께 만든 떡갈비 나눔...공동체 회복 첫걸음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19일 북구 남도향도음식박물관에서 사회 보호계층 임주민을 대상으로 ‘사랑의 음식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공사 임직원과 새롭게 보금자리를 마련한 입주민 등 총 3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대표 먹거리인 떡갈비를 직접 반죽하고 빚으며 자연스럽게 정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공사의 주된 업무인 거주지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웃 간 상호 교류를 촉진해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방침으로, 사회 보호계층을 위한 참여형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정례화해 이주민이 새로운 환경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